

김윤덕 국토부장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

# 향후 5년 정책방향 담았다

인전기준 정비 · 안전인력 확충 · AI 보안 판독 도입 추진  
국가 공역 구조 조정 · KASS 활용 위치정보 서비스 고도화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 정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안전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각 시설 정비,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한다. 디지털 기반의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항 인프라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공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방형 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안전인력 확충, AI 보안 판독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별 안전투자 확대와 자율보고 활성화로 업계 내부 안

전문화도 강화하면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 체계도 갖추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성 기자

## "임금 못받고 강제출국… 더는 국가의 부끄러움 돼선 안돼"

민주 이성윤 의원,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10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7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더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절차를 밟는 동안 행정관청에 거주지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인권 침해 없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 "의산형 소상공·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 추진할 것"

'의산시장 출마'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1조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젊은 의산 다음 만들기 포함 대표)는 의산의 경제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활경제의 구조적 붕괴"라고 진단하며, 10일 '의산형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재직 당시 지역화폐 제도와 법령 설계를 했고, 지방재정경제 실장으로서 지역화폐 국비·지방비 배분체계, 지역경제 회복 예산을 책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의산형 매출 3배 프로젝트'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지금 의산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생활경제의 뿌리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라며, "상권 붕괴·자영업자 감소·공실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포로 공급해 도심 공실률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넷째, 월 2회 운영하는 '잼잼나이트' 상설 이간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산의 밤 소비를 살리고, 미륵사지·왕궁리·의산역을 있는 이간 관광 투트를 구축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행사비·급식비·회비 등을 지역 점포와 사전 계약하는 '선결제 상시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고정 매출을 제공한다.

/의산=이재준 기자

## "노후 용·배수로 피해 개선책 마련해야"

정읍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 점검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적극적인 개선과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분야별로 인한 피해 개선 대책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사업 지원 사업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용품 지원 확대 방안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대책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공공시설 BEEF기오스코 개선방안 △정읍지향·상화차 축제의 발전방향 △야생동물 피해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질문하며 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경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한 기자

## 바다서 열린 땅, 새만금에 활력 모인다

전북자치도, 내년 새만금 국가예산 9855억원 확보  
항만 등 신규사업 대거 포함… 미래성장 동력 확보



새만금 전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련해 오는 15일에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샌드박스·1호 험프 산업 추진상황 공유 회의'를 열어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항을 위해 765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중 705억 원은 신항만 1·1단계 공사를 미루리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여기에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로 준설 사업과 관공선 건조 예산이 각각 10억 원, 37억원 배정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새만금 방조제 개발로 기존 어항을 대체하는 가력형에 대한 추가 개발비 9억 원도 포함돼 어민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수질 관련 사업도 본격화되며, 내부개발 및 서해안 물류거점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낸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반 집적화를 위한 복합단지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대규모 SOC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전기였다"라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17개 현안, 국회서 추가 반영

민주 호남발전특위… 이원택 의원 "새로운 도약 이를 것"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 17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05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원택 국회의원(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0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전북의 미래전략사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호남발전특위는 지난 9·11월 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한 전북 핵심사업 49개를 담고 지도부에 보고하며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내발적 성장 전략을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반영 사업은 △미래전략 산업 △지역 SOC·도시인프라 △문

화·관광·지역복원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시설농업 AI로봇 실증, 차세대 식물 액소좀 기술개발,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조성 등 AI·바이오·우주산업 기반이 강화됐다.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도 반영돼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SOC·도시인프라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637억원 증액돼 기존 순항에 더해 장수군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신단 기업성장센터 확충 등 생활·산업 인프라 지원도 이뤄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남원 도자전시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덕유산 생태탐방원, 국립모두예술컴플렉스 등이 추가 반영돼 전북의 문화자원과 생태관광 기반이 확장됐다. 또한 의료용 험프산업 클러스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농업·생명 산업 분야도 다수 반영되며 지역 산업의 외연이 넓어졌다.

이 의원은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 준 민주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전북의 더 강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단계 증액된 17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8,596억원, 이 중 국비 1조8,4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규모에는 순창·장수 등 농어촌기본소득 10개 시범지역의 5,850억원도 포함된다.

/이만호 기자

## '고향 장수에 대한 애정, 독자들과 나누다'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20일 한누리전당서 출판기념회



2023. 12. 20. (수) 19:00 ~ 21:00  
한국문화재단 전북지부  
한누리전당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빈의 가족 소설  
그가족을 끌어온 그들의 이야기

한국장수를 위한 양성